

	날짜	2013년 9월 23일 월요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첫 번째-*참된 사랑*)		
1.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을 품는 것입니다. (고전 13) 어떻게 사랑이 있는데도 자꾸 교만해 지고 사랑이 있는데도 무례히 행해지고 사랑이 있는데도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고 사랑이 있는데도 성내게 되고 사랑이 있는데도 악한 것을 기뻐하게 되고 사랑이 있는데도 불의를 기뻐하게 되고 사랑이 있는데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사랑은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 바로 하나님의 본능, 즉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능은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품게되면 그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상과 절대자의 그런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무례히 행치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여기는 그런 사랑을 가져서는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정신과 이상을 자기 속에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정신과 이상을 자신의 정신 속에 새겨 놓는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어 주고 모든 것을 건널 수 있고 온유하게 되고 성내지도 않게 되고 분노치 않게 되고 모든 것을 바라게 되고 모든 것을 기뻐하게 되고 이런 것이 그런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속에 임해야 만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것입니다. (눅9:35)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로 오셨는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며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명은 때로 아니라고도 하며 숨겼으나 사랑은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진실로 백성을 사랑하느냐?”했을 때는 숨지 않고 항상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명에 대한 것은 항상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마16:20, 마17:9) 그런 사랑의 본체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사명을 받게된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했을 때 “남자가 권한이 있어서 결혼했다. 남자가 잘 생겨서 결혼했다.” 하는데 가다가 늙어 못 생기게 되면 이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보고 결혼한 자는 끝까지 남아질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미워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라서 구세주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고 죽음의 1-2초 전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간 곳에 구원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사망도 중요하지만 사망은 그 다음이고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이의 말을 들어라.”하셨습니다.(눅9:35) “메시아인데 안 무섭느냐? 그의 말을 듣고 따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듣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화나고 성질 났을 때는 어떤 것을 주어도 안됩니다. 선물을 주어서 마음을 녹인다는 말도 있지만 그런 선물보다 사랑의 선물이 최고입니다. “나는 너를 천만 분의 일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늘 사랑의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께 너를 부탁한다.” 하면 싹 풀어집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3. 위해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사랑하는 본질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나치다 할 정도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체,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자기는 사랑하는데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조금 사랑을 못 받아도 자기가 사랑함으로 좋고 정신도 맑아지고 엔돌핀도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것은 손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은 그 여자가 도망쳐어도 일단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4. 사랑함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일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천구와 마음이 일체 되는 것도 힘들고, 부부일체가 되는 것도 힘들고, 애인끼리도 서로 하나되기도 힘들고, 민족과 주권자가 하나되기가 힘든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고 일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은 사랑의 표상자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에는 환난과 핍박과 모든 어려움이 동반되듯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 비바람이 동반되듯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비바람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듯 우리도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과 영이 하나되지 않을 때 곤고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육과 영이 하나되지 않았을 때 곤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되지 않을 때, 구원자와 하나되지 않을 때 곤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와 선생, 구원자와 구원을 받을 자, 정치의 주권자와 백성이 서로 하나되지 않을 때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곤고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의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그 어린것이 루시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형벌을 주어 자기 때로부터 후손들 4000년 동안 구약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세상, 이성적 사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 사랑은 무한의 세계이면서도 절대 질서와 법도의 세계다. 고로, 질서와 법과 진리 외에서만 강철같이 존재하며 영원히 존재한다. 진리를 떠난 사랑은 악하고 곧 개어지며 파괴되고 만다. . 참사랑이란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참사랑이라고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 진리 속에, 하나님 안의 사랑을 하는 것이 참 사랑이요, 산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충성도, 열심도, 서로 외하고 섬김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나니 이것이 산사랑. 참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치에 합당한 사랑. 영육이 겸비된 사랑. 타락과 상관없는 사랑. 이는 생명권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참된 인간의 사랑들이다.		
* 참된 사랑의 모습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감동이 오는 부분은 어느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표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성경을 통해, 주일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날짜	2013년 9월 24일 화요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		
1.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표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보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표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보내서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을 보내지 않고 중도 보내지 않고 독생자,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같은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대면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 때문에 거짓없이 평가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사실상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히 모릅니다. 봐야 역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았다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다고 하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독자와 같은 사람을 보내사 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 그리스도를 사랑한 만큼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겁날 것이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아끼시는고 하니, 자기 아들을 제쳐놓고까지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사랑을 해 줄 수 있느냐? 고 했습니다. 그 정도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 바란다면 무얼 더 바라겠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했다면 됐지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죽어 주었다면, 죄인을 위해서 의인인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살려주었다면 그 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어 갔어도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과 어떻게 뗄 수 있냐 그겁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 죽어주고 육신을 위해 죽어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기도 전에 한번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악인 이든 선인이든 만민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도와주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악인인가, 선인인가, 사기꾼은 아닌가 다 따지고 난 후에 도와주지요? 예수님은 따지지 않고 모두를 위해 죽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경이 되었으니 할 수 없이 죽어줄 수밖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12영을 들어서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합니다. 이 정도 사랑해 주면 아들을 사랑한 만큼 사랑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한 만큼 사랑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사랑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3. 부모의 심정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구원이란 한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날마다 달마다 있습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는 것은 많은 사건들이 있을 때 이지가지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이지가지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받는 도움처럼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처럼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함께 한 자가 있단 말입니까? 누가 부모처럼 낳아서 기르고, 함께 하고, 양육하고, 도와주는 자가 있단 말입니까? 인간세계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다행스럽게 딱 하나가 있는데 부모의 세계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비유가 안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도와주고 함께 하셨습니다 또 우리들을 그 동안 도와주시고 함께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로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4.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요1 4:11) 이런 것이 있답니다. “오직 사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늘이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아들을 낳아 기르는데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잊어도 자식은 안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해산의 고통과 몸부림을 치며 낳은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더러 생각하기를 ‘이렇게 무심하니 나에 대해 잊었는가 보다.’ 하는데 지가 나를 잊었으니까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젖 먹는 어린아이를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잊겠느냐?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 했습니다. 어머니가 젖먹는 아이를 돌볼 때 하루에 한번씩 보겠습니까? 아니면 열 시간에 한번씩 들여다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린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고 할 때 몇 시간에 한번씩 들여다볼려고 합니까? 한 삼일에 한번씩이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어린아이한테 욕을 얻어먹습니다. 시간마다 들여다보는 것도 부족하고 수시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눈은 항상 떴지 말아야 되고,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돌아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세운 자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이고 그 많은 중에서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다면 나도 잊지 않고 더욱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너희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다. 혹시 너희 인생들은 잊었을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5.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요1 4:10)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사는데 뭘 사랑했던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었습니다. 우선 잘 살고 우선 부자 되는 것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부모가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젖줄 놨은 젖을 주고, 밥줄 놨은 밥을 주고, 옷을 입힐 놨은 옷을 입혀놓기만 하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크면 공부를 가르쳐서 대학에 보내는 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사랑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장과 주체대로 맞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도 사랑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짝사랑을 하고 있어도 자기는 모릅니다. 짝사랑을 받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랑을 할 때 그 때서야 알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가 사랑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짝사랑을 하니까 불만과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죽일 수도 없고 말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한번씩 쳐다봅니다. 아예 쳐다보지 않으면 팬찮은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나는 것입니다. 살다가 가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부릅니다. 그때는 죽자살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다 끝난 다음에는 완전히 막무가내입니다. 이것은 아예 짝사랑 같으면 버리겠는데 짝사랑도 아니고 설익은 감자처럼 가끔씩 한번씩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더 애가 타시는 것입니다.		
*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근거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적어보세용~~~~		
*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날짜	2013년 9월 25일 수요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세 번째 - 사랑의 방법)		
1.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1 4:11) 누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인가 하니 하나님과 주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사랑한다면 사탄은 때를 지어 쫓아와 하나님께 힐문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욕같이, 예수님같이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탄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조건 걸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절대 개입할 수 없는 불가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리고 아무리 책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간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사랑치 못한 자가 가는 무서운 형벌의 세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구원한 주를 사랑한 사람들,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 보아야 그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알려면 꼭 사랑해 보아야 합니다. 욕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사랑하기 전에 욕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나 흑암이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안 믿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니 믿어야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서, 예수님을 진정 사랑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의 사랑은 서로 육체관계를 가질 때 사랑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런데 육체관계를 갖고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을 했는데 왜 이혼을 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랑의 핵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것이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근본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을 참되게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구세주니까. 믿어야 지옥에 안가고 구원받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믿으면 크나큰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과 근원을 배워야 합니다. 땅의 사랑과 하늘의 사랑은 다르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근본적으로 배우고 깨닫고 사랑해야 사랑의 영원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도 아픔도 환난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충성으로 일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확실한 예수님의 편이 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려면 예수님의 근원을 깨닫고 그 어려움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자기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때 누구보다 예수님을 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고전 13:13)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근원인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고 하니,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변해지는 사랑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인정받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하십시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인고 하니, 내가 마음을 놓고 딱 믿을 수 있는 제자입니다. 내가 “저 놈은 변심이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심을 안 한다. 마누라를 버릴지라도, 남편을 버릴지라도 나는 못 버린다. 변심하지 않는다.”할 정도의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나 또한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는 곳에도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변심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무지한 것은 가르치면 금방 지혜로와 집니다. 그러나 변심하는 사람은 힘이 듭니다. 변심하지 말고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늘과 일체 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4.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 2:4)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은 영원히 식지 않고 태양과 같은데 우리들의 사랑은 식습니다. 누구는 말하기를 하늘의 사랑이 식었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뜨겁더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그러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양이 식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겨울에는 태양의 온기가 잠깐 식고, 여름철에는 뜨거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한 것인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구가 돌아서 웅덩이 지면 겨울이 와서 너무너무 추운 식의 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위치에 따라 춥고 더운 것이 결정될 뿐입니다. 지금도 태양과 먼 곳은 열음이 10-20m 얼어붙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태양이 식어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의 품이나 형제의 품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태양이 아무리 뜨거워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춥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난로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쳐다보는 불빛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다고 해서 뜨거워집니까? 실제로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메시아의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식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운명권이 좌우되는고 하니 잘했을지라도 촛대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결론은, 장점과 좋은 점이 많이 있을지라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사랑의 기준이 무엇이나? 처음 신앙생활 할 때의 그 기준을 말합니다. 그 때 다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처음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처음 말씀을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아무 것도 모르고 오직 거기에 폭 빠져서 따라가는 신앙! 그것을 기준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부기간, 그리고 애인세계, 섬리사의 세계, 이 모두가 처음 감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고, 몸부림도 일어나고, 책망도 일어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좌우되는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처음신앙 감지 못하면 일단 촛대를 옮긴다고 무서운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촛대는 뭐냐? 이것은 섬리권의 주인을 옮긴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옮긴다는 말입니다. 5. 하나님께 나갈 때 사랑을 쫓겨놓고 가면 안 됩니다. (요1 2:15) 우리가 생활할 때 가장 핵심인 것이 있는데, 핵을 잊고 가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다 못 갖고 가도 핵만은 가지고 가면 나머지는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해변가에 수영하러 갈 때는 햇빛 가리는 파라솔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밥도 싸 짊어지고 가야하고, 깔판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바다에 들어가려고 보니 수영복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더구나 거기는 수영복을 파는 장소가 없습니다. 수영복을 가지러 가려면 비행기로 두 시간을 가야 합니다. 다른 것은 죽게 쫓겼는데 수영복을 못 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수영복을 입었고, 애인도 바다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수영복을 안 가지고 와서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벗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미친 취급을 받는다고 쫓아냈습니다. 수영복 있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조금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수영복이 하도 작아서 나누어 줄 것이 없습니다. 나누어주면 자기가 쓰기에다 부족합니다. 밥 같으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주면 자기의 수치가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사람에게 조금씩 사랑을 나누어주고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사랑을 쫓겨놓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자기가 가진 것을 몽땅 가지고 가도 인간의 사랑으로는 부족합니다.		
*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네 번째-사랑했을 때)

1.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요1 3:14)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꾀박, 환난, 어려움 이런 것이 문제가 안돼요. “선생님 저 어려워요. 집에서 꾀박해요.” 하면 “뭘?” 그러니까. “뭘?” 라는 단어 속에 모든 말이 다 들어 간거여.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감히”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나도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집에서의 어려움, 환경, 동네사람, 주변사, 가난과 쪼들림과 배고픔과 찬바람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 이겨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낙심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파산하게 됩니다. 환난 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 시대 때는 그 환난과 꾀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잘 믿고 역사의 빛나는 사도의 신앙생활들을 지켰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사망에 있는 자들이 생명권으로 살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2.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 14:15)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구촌의 숨겨진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고 하니 성경을 많이 읽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일등을 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비밀을 역시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 된 성서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서 이 진리를 받게 된 것이지 진리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사랑해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찬란히 심정 깊이 받아 들일수가 있을 것입니다.

3. 사랑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하는 힘이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은 한 달을 기도해도 깊은 얘기를 안해 줍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속에 있는 얘기를 해요. 사랑의 세계가 얼마만큼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님’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한 달 기도 소리보다 높다는 거여. “하나님” 하면 “응?”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한 달을 기도해도 ‘응’ 소리를 하지를 않아요. 천사들이나 왔다갔다 얘기해주고 그냥 가고 한다고. 그래서 사랑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4. 사랑함으로 이상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상세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화 받을 것을 복으로 받게 되기도 합니다.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가 있다면 미움과 사랑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인생의 곤고함이 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마다 갈등과 각종 심령의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 주며 사랑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신이 사랑의 능력을 받게 되고 사랑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의 은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제일 크다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바울 선생도 하늘의 묵시를 받아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서로 사랑이 없는 곳에 미움이 생기게 되고 지옥 같은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복의 역사가 시작도 됩니다. 사랑은 화해의 역사를 오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오게 하며 이상세계를 이루게 하는 활력소 역할을 합니다.

오직 사랑함으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과 미움이 없는 진정한 사랑으로만이 사랑의 세계, 평화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와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치 않는 데서부터 깨어지게 되었음으로 누구든지 사랑과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시대를 따라 보낸 자를 사랑하고 따라야 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 사랑함으로 구원시키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형제가 잘못하여 미워할 것이 있지만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또 가르치며 그를 위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일입니다. 사랑은 원자폭탄보다 더 무섭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사랑해주고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는 그를 구원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의 날에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어야 그도 구원을 받게 되고 자신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미운 짓을 하여서 미운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어야 그가 사망에서 나오게 되고 자신도 더욱 은 같은 사람에서 금 같은 사람이 되고, 금 같은 사람이 금강석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보다 더 좋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은 구원을 시키는 구세주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실로 진실로 사랑함이 참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는데 있어서 무슨 위력으로 구원을 시킬까요?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구세주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구세주는 진리, 사랑, 그것이 하늘로부터 받은 특권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의 생명줄로 사람을 이끌어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자이기 때문에 구세주 또한 그의 대상체로 사랑의 근본자가 되어야 함이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도 주와 같이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구원함이 합당하겠습니다.

생각하기 1

내가 진리 말씀을 가장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봤을 때는 미친 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을 때였습니다. 나는 하늘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딱 하나 갖고서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나는 남자이고 예수님이 동성연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는 못할 것이라고 까지도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의 큰 집회에 갈 때마다 앞에 못 앉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도 무리 속에서 잘하면 뒷자리나 한 귀퉁이에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왕이 사랑할 때는 남자들이 아주 가까운 비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왕이 사랑하고 믿고 신임하니 저렇게 되었다’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심복, 예수님의 심복이 되어서 열심히 살겠다고 했고, 나는 세상에는 취직할 수 없고 하나님께 취직해서 살겠으니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임금을 잘 섬기고 충성스럽게 살며 충효의 신하가 되려면 그 임금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좁고 텅고 외롭고 쓸쓸하고 무서운 세계를 수십 년 동안 견디면서 성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거기에 해당되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 그럼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무엇을 얻었는지.. 적어보세용~~

* 위 글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생을 성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2013년 9월 27일 금요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다섯 번째-사랑치 못했을때)				
1. 관계가 끊어집니다. (요1 2:15) 유대인들도 그 당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습니다. 진리에서 끊어졌습니다. 법칙에서 끊어졌습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열심 내는 것과 끊어진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를 다시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끊어져 있으면 이 세상에 메시야가 나타나도 모르고 구세주가 나타나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 사랑이 식으면 죽습니다. (벤전 4:8) 사랑이 식으면 죽습니다. 사랑을 주고 받고 하는 섭리사에서 사랑이 식었다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체온이 37도 이하로 내려가면 죽습니다. 심장 멈추면 죽듯이. 그러니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의 심장이 항상 뛰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하루에도 열댓 번씩 헛손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하나님이 따라 오시나 안 따라 오시나 헛손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따라 다녀야 합니다. 사랑하면 안 따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사랑으로 완벽하게 해 놓아야 합니다. 몸의 열이 식으면 죽고 심장이 멈추면 죽듯이 사랑이 식으면 죽습니다. 신앙이 식으면 벌써 사망권이 덮친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이 식었다’ 하기보다는 ‘사랑이 식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썩과리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없으면 기성시대보다 나은 점이 없습니다. 왜? 더 엄청난 말씀 듣고서 못하면 더 못한 사람들이지요 3. 촛대를 옮깁니다. (계 2:5)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그냥 파서는 다 잘해 보였습니다. 어려운 환난도 이기고 고비도 다 이겼는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지적인 모순은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이 굉장했는데 사랑이 식었다 하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다시 소생하려면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찾으라 그것을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못하면 그냥 끝나자고 말씀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사망권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록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기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즉 촛대 때문에 막 조명을 주고 사명을 주고 그러는 것인데, 조명을 옮기고 사명을 뺏어 가면 한 농부로 끝나는 것이 됩니다. 4. 시대가 지나가고 후회하게 됩니다. (마 25) 마태복음 22장의 혼인 잔치집과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을 보면 맞이한 사람은 너무나 뜨겁고 열렬했지만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데서 냉랭하니 이렇다 저렇다는 말 한마디 전혀 전해주는 사람도 없는 문밖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다섯 처녀들이 되어버린 것을 볼 때 하늘 뜻은 냉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노크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림입니다. 마음의 문을 노크하는 것입니다. 누가 노크하는 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노크할 때 노크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대의 섭리권에서 항상 문을 열어 달라고 두드리십니다. “새 시대가 왔다. 문을 열어달라” 그런데 이상하니 그 문을 못 엽니다. 그 노크 소리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에 따라 지나가 버립니다. 결국 나중에 깨닫고 ‘내가 미쳤었구나, 정신이 나갔었구나. 왜 그랬을까’ 이것이 바로 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당세에 옵니다. 후회는 당세에 오되 기회는 당세에 오지 않습니다. 다른 고난으로, 다른 시대급으로, 다른 세계로 400년 후에 혹은 4000년 후에 다른 세대에 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나도 아멘입니다. 후회는 그 저지른 당세에서 오는데 일단 기회는 400년 후에 혹은 4000년 후에 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나의 사랑의 점수는 몇 점인지 체크해 봅시다 아니다(-) 그렇다 1.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매일 확인한다. 1 2 3 4 5 2. 나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1 2 3 4 5 3. 생활 속에서 인간을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본 적이 있다. 1 2 3 4 5 4.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낸 적이 있다. 1 2 3 4 5 5. 스스로 생각해도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의 사랑이 변함없고 열렬하다. 1 2 3 4 5 6. 나는 매일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편이다. 1 2 3 4 5 7. 나는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매사에 즐겁고 감사하며 일을 하는 편이다. 1 2 3 4 5 9.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항상 노력하는 편이다. 1 2 3 4 5 평가해보셨나요? 각 문항의 합한 점수는 몇 점인가요? 나의 점수 (점) 마태복음 10장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모든 일을 물의 흐름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옴같이 해야 합니다. 봄이 와서 잎이 피고, 꽃이 피는 순리같이 차근차근 순리로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할 때 원칙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대로 안 해서 넘어지면 또 기어 올라와야 하기에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기계를 만지는 사람도, 운전을 하는 사람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건물을 짓는 사람도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그와 같은 원칙적인 인생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원칙이고 기본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벗어나서 탈락된 것입니다. 탈락되므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탈락된 것을 복직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해야만 복직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탈락된 것을 복직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100리를 갔으면 100리를 돌아와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던 간에 결길로 갔으면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그것이 원리원칙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치 못했을 땐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내 사랑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께 약속 한 가지를 해볼까요?			

*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 *

내 고향 다리골 기도굴

30년 수도 생활을 하며 전국, 세계, 간 곳도 많지만 깊이 묻혀 기도한 곳은 몇 군데이다. 그 중 하나가 내 고향 다리골 기도굴이다. 다래가 많다고 다래굴이었는데 발음상 그저 쉽게 다리골로 후손들이 이름을 붙여온 골짜기이다. 다리골 기도굴은 일본이 통치하던 1905년부터 1945년 사이에 굴을 캐기 위해 파 들어간 굴이다. 깊지는 않지만 외부 사람들을 피해 기도하며 책을 볼 수 있는 조용한 굴이다.

내가 살고 있는 시골집에서 약 1.5km 떨어진 굴이라 낮에 일을 하고 가도 부담이 없는 거리였다. 온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씻고 닭고기와 저녁을 먹은 후 기도하러 가기에 거리상 좋았다. 늘 나무하러 다니던 산이기 때문에 밤에도 무섭지 않고 정신적인 부담도 별로 없었다. 광산은 오래 전에 금이 나오지 않아 철거되었기 때문에 나만이 다니던 길이 되었다. 그믐밤이든, 달밤이든 비바람 눈보라치는 밤이라도 더듬지 않고 뛰어 다닐 정도로 익숙해진 나의 길이 되었다. 옛날에 나 혼자 다닐 땐 15~20분 소요되었던 길이였다. 다리골 기도굴은 나의 수도 생활에 있어서는 뜻이 얕힌 곳이다.

창조의 비밀을 깨닫기 위한 몸부림

1970년 봄, 아직 찬바람이 불고 산골짜기의 바위에 흘러내리던 물이 얼어붙어 바위가 호연한 때였다. 그 해 초봄에 창조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동안 창세기 2장 8절로부터 17절까지를 읽고 선악과와 생명 나무에 관한 의문을 풀지 못해 이것을 알고자 오래 전부터 기도하며 몸부림을 쳐왔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과연 무엇을 두고 말했을까. 오늘날에는 그 나무와 열매가 없는 것인가’ 하고 하늘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묻고 성경의 수백 군데를 다 뒤지며 기도했었다. 선악과에 대한 궁금증에 사로 잡혀 기도한 것은 그 때가 약 18년째가 되는 때였다. 흔히 일반 목사님들이 말하는 식으로 ‘무조건 믿지 뭘 알고 믿으려고 하느냐’는 식의 신앙이었더라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얼마나 중요한 지 성경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 해놓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며 지구상에 자기가 창조한 사람까지도 그것만큼은 절대 못 따먹게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 아니, 그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게 창조한 사람까지도 못 먹게 했냐는 것이다. 나는 정말로 궁금했다. 예수님은 생명을 두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평가했는데 아니 그것을 따먹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말했으니 그 놈의 과일이 사람보다 귀하냐는 의문이 들었다.

‘세상에 사람보다 귀한 과일이 있을까? 법칙상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나는 깊은 경지에 들어가기도 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선악과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왜 선악과를 귀하게 여기냐고 물어보았다.

요즘 말로 어렵 반론 어찌도 안 되는 말인지 대답이 안 왔다. 하나님은 왜 자기가 귀히 창조한 자들이 따먹으면 죽을 과일을 만들었을까? 정말 이치가 안 맞는 일이었다. 과일을 따먹고 타락되어 온 인류가 하늘의 미움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는 후손들로 남아지게 되었으니 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알면 궁금하게 생각지 않을 자가 없다. 정말 성경을 믿는 자라면 모두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성경을 통한 깨달음

창세기 3장 16절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 잉태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성경구절이 나온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잉태한 고통이 왔다? 세상에 어떤 과일이 먹으면 임신되는 과일이 있을까? 현 세상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먹으면 임신되는 과일은 없다. 고로 잉태와 임신을 말한 것을 보면 분명 이성적인 단어임이 틀림없었다. 그러면 이성적인 단어라면 분명 비유의 단어이겠구나 하고 나는 깨닫게 되었다! 창세기 2장 8절 이하를 깊은 경지에 빠져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던 가운데 결국 깨닫게 된 것이다. 창세기 2장 8절 이하를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 즉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나온다. 인간을 과일 나무로 비유한 것을 깨닫고 ‘이것이다! 생명나무는 아담을 가리켜 비유했구나. 남자가 이성적 행위를 할 때 잉태됨을 3장 16절에서 말했고, 2장 17절의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자들에게 이성의 범을 정해 놓고 그 범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적으로 볼 때 죽는다는 표현을 쓴 단어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틀림없다고 나는 굴속에서 고향을 지르면서 외쳤다. 가정에서도 어린 나이에 이성관계는 부모가 엄히 다루고 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그러했다는 영감과 감동이 나에게 크게 부딪쳤다. ‘선악과는 하와를 말하고, 생명나무는 남자 곧 아담이구나! 따먹지 말라는 것은 취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상식적인 단어임을 깨닫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 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다. 곧 예수님을 후아담이라 칭했다. 또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보면 생명 나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신학에서는 여기의 생명나무를 예수님이라 한다.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나무로 비유한 것이다. 고로 진 아담인 에덴동산의 아담을 생명나무로 칭했음이 틀림없고, 아담 앞의 하와를 선악과로 혹은 선악을 구분하는 열매로 칭함은 어디 갈 데가 없는 확실한 말씀이다. 그리고 여자의 한 지체를 선악과라는 금단의 과일로 표현했음을 깨달았다. 아가서에는 솔로몬이 여자의 지체를 들어 여러 가지로 비유했다. 얼굴은 달로(아6:10), 목은 땅대로(아7:4), 양 유방은 쌍태 노루새끼로(아4:5), 다리는 성전 기둥으로(아5:15), 키는 종려나무로(아7:7), 배꼽은 섞은 포도주 잔으로(아7:2), 허리는 꼭 묶은 밀단으로, 눈은 등불로(마6:22), 입은 홍색 실타래로(아4:3) 비유했듯이 창세기에서 여자 지체를 선악과로 비유함은 마땅한 것이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굴에서 나올 때 동쪽 산에 막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 때 “저 찬란한 빛이 어두움을 모두 물러가게 하는 태양빛이 분명하듯, 내가 깨달은 진리 그것도 분명히 맞다. 선악과도 생명나무도 분명 사람을 두고 말했음이 틀림없다”고 번갯불이 치듯 내 머리에 영감이 와 닿았고 음성이 와 닿았다. 나는 너무 감격해 땅을 치며 기뻐했다. 때는 70년 3월 초였다. 그 때부터 과거에 내가 평소 눈으로 보아온 남녀 간에 대한 모든 것을 더 깨달아 확신을 얻게 되었고, 성서에서도 그런 쪽의 말씀을 찾게 되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간음하다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고(고전 10:8, 민 25:1~9), 소돔 땅은 음란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으며,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때의 홍수의 원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허락치 않은 사랑을 하게 되면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다.(창 6:1~3) 유다서에 보면 천사가 타락한 것도 이성적 타락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유 1:6~7) 이와 같이 성서에서 보듯 인간 타락의 근본은 모두 이성(異性)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월남에 파월해 있을 동안 이성적으로 아예 개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의 3년 6개월 동안 이성을 지켜준 기적, 이 모두가 절대적인 뜻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다.

다리골 기도굴 거기에서 깊은 경지에 도취해 이 비밀을 깨달았다. 이 의문스런 문제를 깨달으려고 겹겹하게 하기로 결심한 때로부터 약 18년이 흘러간 후 깨달았던 것이다. 잘못 알고 있는 진리를 바로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한풍에 생화송을 보는 것같이 힘들고 어려웠다. 눈 덮인 위에 향기나는 꽃이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신기하겠는가! 누구든지 신기하고 기이함을 느낄 것이다. 나도 이 진리를 깨닫고 그와 같은 기쁨을 맛보았다. 나를 가르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천하에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말고 간직하라고 엄명했다. 그리고 주님은 “나 예수가 아니라고 해도 믿지 말고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면 나의 명을 받고 전하라”고 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의문을 깨달은 것은 한 날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다. 아무튼 이 의문은 한 역사를 두고 깨달은 태양 같은 빛의 진리 말씀이었다.

사랑

나뭇잎에 새긴 사랑

바람불면 떨어지고

모래위에 새긴 사랑

파도치면 사라지며

마음속에 새긴 사랑

백년가도 남아있고

저하늘에 새긴 사랑

영원토록 가리로다

*** 매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과 찬양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고백						
찬양 및 묵상						